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 ·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24일 '제33차 정기총회 및 포장인의 날'에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상, 그리고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24일 제33차 정기총회 및 포장인의 날 '에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상 그리고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여했다.

이번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는 수출진흥 부문에 (주)진우아이앤피 김영선 대표가 장학생 부문에 대구대학교 변치훈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은 (주)팩플러스 최민수 대표가 수상했고, 공로상은 신동수 (주)유상 회장이 수상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

최민수 (주)팩플러스 대표이사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출진흥 부문 김영선 (주)진우아이앤피 대표이사
장학생 부문 변치훈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 수상자

“제품 개발 및 친환경 실천 노력”



최 민 수
(주)팩플러스대표이사

Q. 먼저 제4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23년은 (주)팩플러스를 경영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서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저는 물론 팩가족들도 기뻐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포장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의 팩플러스는 다품종의 기성봉투 및 기획, 인쇄, 가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봉투의 다양한 규격과 재질 등을 거래처에 사용용도에 맞게 공급하고 있고, 최소판매단위를 100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장으로 하여 소비자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으며, 30억의 상품재고를 준비하여 거래처에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알코올잉크를 사용해 환경과 안전도 모범 실천하고 있습니다.

Q. 포장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언젠가 거래처에 전화를 받았던 게 생각납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하지만 난 다른업체들이 팩플러스를 잘 몰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하고 잠시 기뻐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더 책임감 있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거래처에서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을 실천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수성잉크도 테스트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 재질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만 아니라 포장박람회 등을 통해 세계시장도 개척예정입니다.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수출진흥 부문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에 힘써야”



김 영 선
(주)진우이앤피대표이사

Q. 먼저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제26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포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용

Interview

교 고문님, 임경호 회장님, 협회관계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하여 늘 협조하고 협력하는 회원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경기 광주시에 연포장 공장을 1992년에 창업하여 지금까지 30년간 무탈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1년에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사업을 추가 확장하여 산업용 코팅 설비를 설치해 PVC를 대체하는 난연 인테리어 필름 및 강판용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경영과 신제품 연구 개발, 영업, A/S 기술지도 등이 주된 업무이며, 경기도 광주의 사단법인인

광주시기업인협회의 협회장을 4년간 맡아, 우리지역의 기업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 포장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기억에 강하게 남는 에피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공기압(에어) 때문에 많은 금액에 손실을 볼 뻔 했었던 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가서 직접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원인조차 파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살균용 포장지를 수출 했을 때 일부분 표면에 손상 및 변형이 발생된다고 하여 현장에 방문했었던 건입니다.

이때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확인결과 고압 스팀, 살균 기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24일 '제33차 정기총회 및 포장인의 날'에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상, 그리고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의 온도편차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해결했습
니다.

두 에피소드를 통해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중요시 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맞춘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에 힘써
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라비아 인쇄용 잉크를 100% 알코올타입으
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친환
경적이고 규격화된 매뉴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중요
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
습니다.

장학생 부문

“친환경 박스 제작의 보냉효과 연구”



변 치 훈
대구대학교식품공학과

**Q. 먼저 26회 한용교포장인상
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한용교포장인상 장학
생으로 추천해 주신 김수일 교
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포장연구실에 들어와 교수님과 관련 분야를 연구하
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수상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학업
에 열중하고,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
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생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현재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식품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식품포장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 중입
니다. 최근 교수님과 왕겨(쌀겨)를 활용한 친환경 박스를
제작하여 스티로폼과 비교했을 때 보냉효과가 있는지 연
구하였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학과 남학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연구실 및 식품포장공학 과목에 대한 소개
를 하였습니다.

**Q. 대학에서 패키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또는 패키징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A. 포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채우다, 넣다, 묶다, 감싸다,
돌돌 감다, 보호하다 등의 의미만 생각하기 쉽지만, 시
대와 더불어서 그 역할과 기능 목적이 변해왔기 때문에
현대 포장의 의미는 단순히 물건을 싼다는 의미만을 포
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미지를 상승시키거나
구매를 유도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등
포장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변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의 포장산업은 점차 더 발전하고 중요해질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선은 현재 재학 중인 식품공학과 졸업을 위해 학
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기사 자
격증이나 어학성적에 집중할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식품 관련 현장실습을 통해 경험
을 쌓고 싶습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들이나 사회로 나간 선배님들과의 잦
은 대화 및 교류를 통해 앞으로 저의 진로를 확고히 하
고 4학년을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B]